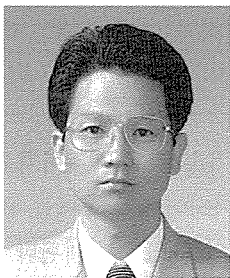


‘한국형 테크노마트’ 필요하다

기술이전의 시장 또는 기술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와 행위 자체를 ‘테크노마트’라고 한다. 13년 전 일본에서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단시일내에 세계에 전파된 테크노마트. 우리나라에서는 95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일주일간 개최하였고, 94년부터 일본과 합동으로 매년 행사를 치뤄오고 있다. IMF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산·학·관이 협동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한국형 테크노마트’로 경제희생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金 希 泰

〈충남대 공과대 금속공학과 교수/(사)한국 테크노마트 감사〉

테크노마트(Technomart)란 Technology Market(기술거래시장)의 줄임말이며, 기술이전시장 또는 기술을 상업적으로 매매하는 장소와 행위 자체를 말한다. 수공업적 사회인 옛날에는 부자상전(父子相傳) 또는 사제상전(師弟相傳)방식으로 기

술이전이 이루어졌으나 근대의 산업화 시대에 와서 기술도 상품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13년 전 일본서 법인 출범

테크노마트란 말 자체는 13년 전 재단법인 일본 테크노마트의 출범 이래 단시일내에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것은 이때까지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던 기술이전이 조직적으로 지역간 또는 국가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으로서 테크노마트 사업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재)일본 테크노마트는 동경에 본부를 두며 오사카, 나고야를 비롯

해서 일본 전국 15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두고 활발한 기술이전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일본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해서 APEC 나라를 대상으로 한 APEC-테크노마트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미 95년 5월에 우리나라 대전에서 제1회 APEC-테크노마트를 1주일간 개최한 바 있었고 제2회는 1998년 1월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역시 1주일 개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테크노마트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단기간의 행사(event)로 머물고 후속단계도 연속성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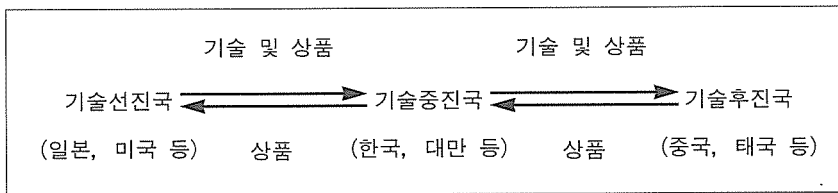
단지 중국만이 일본 테크노마트와 유대를 가져 북경, 상해, 천진 등 5개의 지역에 상설 테크노마트를 설치하여 나라의 산업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점차 테크노마트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일본 테크노마트와 산업기술정보원이 합동으로 연 1회씩 1주일간 한·일 테크노마트를 개최해 왔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1주일을 3일간씩 나누어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행사(event)로서의 테크노마트는 보통 기술제품전시회, 기술거래상담회, 기술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크게 못 미쳐 일본 테크노마트는 한국측에 중국처럼 상설기구를 설립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2극 대

립이 해소됨에 따라 세계는 몇개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또한 세계 경제질서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통합되어감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동시에 국제적 분업이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생산기술이 노동임금도 낮고 기술수준도 낮은 지역이나 나라에 이동해 나가고, 거기에서 생산된 상품은 노임이 높고 기술수준도 높은 지역 및 나라 즉 선진국의 시장에 공급되는 순환(Cycle)이 일반적인 도식이 되었다.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기술이전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후진국, 기술도입으로 새 기반

도식 윗부분에서 기술은 반드시 높



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흘러 가며 동시에 상품도 낮은 나라의 시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도식의 아랫부분에서는 저수준 기술국에 이전된 기술로 생산된 상품도 고수준기술국의 시장에 도입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에서 경제법칙처럼 기술과 상품은 서로 이동과 이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모두가 당초에는 예외 없이 기술이전된 도입기술이다. 지금

도 우리나라는 도입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지금은 과학기술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명치유신(1868年)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개량·개선하고 좋은 기술로 만드는데 뛰어난 소질을 가진 나라다.

일반적으로 도입한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 이상의 기술로 개량·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정도(正道)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도 그렇게 발전하여 왔다. 테크노마트는 그러한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은 기초 및 응용연구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거의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한 결과를 생산기술에 연결시켜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중간기술로서 'Engineering 기술'이 있다.

이 Engineering기술이 없이는 산업화는 불가능하다. 이 기술은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경험했던 기술자만이 가지는 노하우(Know-how)에 속한다. 결국,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엔 그러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노련기술자가 지극히 드물다. 그러나 일본같은 나라에는 현장생활이 30~40년이 되는 퇴직기술자가 수천

명이 있다. 인맥만 잘 찾으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설 테크노마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연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내·외적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는 상설적 테크노마트가 필요하다. 테크노마트는 기술거래시장이므로 기술을 사고 파는 기구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 및 응용연구 결과를 완성시켜 많이 팔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와 WTO의 시련에 부딪히고 있으며, 기업은 부도를 내어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가장 시급한 일은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직장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것도 쓰러지지 않는 건전한 경쟁력 있는 직장이라야 한다.

산·학·관이 협동·지원해야

그러한 문제의 대책중 하나가 바로 테크노마트의 활용이다.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과 전문인력을 중개·알선해주며 시험, 분석, 연구기기를 소유한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개·알선하고 창업자들이 필요한 창업 자금까지 중개·알선하는 서비스(Service)를 제공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형 테크노마트'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적 견지에서 산·학·관이 협동하여 지원해 주는 한국형 상설 테크노마트 기구로서, 올 10월에 정부(중소기업청)가 설립인가한 사단법인 한국테크노마트(The Korea Organization of Technology Transfer Market, KOTM)가 설립되었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㉗